

학령기 아동의 기성복 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경남 · 함옥상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about Fitting of Children's Ready-to-Wear Clothing

Gyoung-Nam Yi and Ock-Sang Hah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eimyung University, Taegu, Korea

Abstract : The problem of fitting of children's clothing was researched through survey papers. The survey subjects were th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e 1-6) and the appropriateness of size, satisfaction with size, and fittings were asked. The survey area was divided into urban and rural area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The children's clothing was mostly purchased in stores that carry lower-middle price range. The elements considered upon purchase were in the order of price, size, color and patterns. The frequency of purchase is 2 outfits a year, and the highest rate purchase was shown during the change of seasons. The size was picked through trying on the garment. The preferred indication of size was the one marked according to body size. The most popular size upon purchase was one size bigger than the proper fitting size. Mothers want their children to be able to wear one outfit for two years and actually children were able to wear them for two years. The highest degree of satisfaction upon proper fitting was bust girth and shoulder breath.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a new purchase is the length. The most frequent dissatisfaction is the way buttons are sowed on.

Key word : proper fitting, satisfaction with size, fitting, economic factors, satisfaction with fitting.

1. 서 론

학령기는 만 6세부터 청소년기 전까지의 시기로 초등학교 시기를 이른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동작과 활동이 왕성하고 운동에 대한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각종 운동을 즐기게 된다. Ryan(1966)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운동에 방해가 되는 의복을 싫어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의복과 더불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질기고 튼튼한 옷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을 형태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며, 그들만의 독특한 신체구조를 가진다(재인용, 박은서, 1993).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의복은 신체 성장과 구조를 고려한 경제적이고, 활동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 아동복의 구입 형태를 보면 이미 1970년대에 기성복의 이용율이 90%가 넘어(김영옥 1975, 신상옥 1976)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대부분이 기성복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의 체형에 따른 다양한 치수의 분류 및 적합한 패턴 제작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복의 의복 치수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 정혜영(1980)은 어머니들의 아동복 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7, 8세 아동의 셔츠와 바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경향을 조사하

였다. 이경숙(1981)은 아동복 원형제작에 필요한 치수에 관한 연구에서 6~8세 아동을 중심으로 치수를 제시하였으며, 임세미(1984)는 아동복 표준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인체계측을 한 다음 공업진흥청의 제품치수와 기성복 회사의 제품치수를 비교한 후 새로운 표준 치수를 발표하였다. 이종미(1989)는 학령기 아동의 의복치수 규격 및 등급법에 관해서 연구하였고 강현주(1989)는 초등학교 남자 아동 기성복 바지와 남방셔츠 치수실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김경애(1992)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동 의류구매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생산 아동복의 치수의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바지의 착용 부위별로 적합도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은정(1995)은 인체 계측치를 사용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한 의류 치수 규격을 제시하였고, 현 의류 업체에서 사용하는 실제 규격과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 의류에 비해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인 초등학교 아동의 의류 구매 실태와 현재 생산되는 아동복의 치수 및 적합성, 경제성, 수선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복의 구입자인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조사 방법으로 아동복 치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 구매현황과 어머니의 배경과의 관계 및 구입 시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파악한다.

둘째, 아동복의 치수의 선정 방법, 치수 만족도 및 치수에

Table 1. Background of Research Subjects (N=614)

Age	Frequency Distribution		Education level	Frequency Distribution	
	N.	percentile		N.	percentile
35 years below	198	32.1	middle school & below	122	19.9
40 years below	323	52.6	high school	328	53.4
41 years bevond	94	15.3	college & bevond	164	26.7

occupation	Frequency Distribution		income	Frequency Distribution	
	N.	percentile		N.	percentile
yes	211	34.4	1,000,000 below	70	11.4
No	403	65.6	1,500,000 below	108	17.6
			2,000,000 below	151	24.6
			2,500,000 below	202	32.9
			2,500,000 below	83	13.5

Tale 2. Background of Research Children Subjects (N=614)

Content	male	female	Grade						The Order of Birth			
			1	2	3	4	5	6	first	second	third	forth
N.	298	316	106	100	102	101	99	106	273	273	47	21
%	48.5	51.5	17.3	16.3	16.6	16.4	16.1	17.3	44.5	44.5	7.7	3.4

대한 인지도 등을 어머니의 배경과 관계에서 비교 고찰한다. 셋째, 아동복 치수에 대한 적합도를 파악한다. 넷째, 표시 치수에 대한 충성도 및 아동복의 경제성을 파악한다. 다섯째, 구매한 아동복의 종류에 따른 수선 상황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내용

학령기 아동의 기성복 치수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布施谷節子(1991)와 왕인숙(1996), 김경애(1992), 이영숙(1997), 이경미(1992)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작성되었다. 설문 내용은 응답자 및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 사항 7문항, 아동복의 구매에 관한 4문항, 아동복 치수 및 치수 적합도에 관한 7문항, 경제성에 관한 3문항, 수선에 관해 7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학령기 아동 1학년에서 6학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 지역으로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농촌 지역으로는 영천군 신령면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각 한 학교씩 선정하여 한 학년에 두 학급을 집락표본으로 표집하였다. 각 학급당 30부씩 총 720부를 1998년 12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불완전한 것을 제외하고 614부(대구 310부, 신령 304부)를 통계 처리에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유, 무 및 월 평균 소

득은 Table 1과 같으며, 대상 어린이의 남·여 비율, 학년별 구성 및 출생 순위는 Table 2와 같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t-검정, 대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구매

구입장소 : 아동복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저가 의류점(38.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시장(23.5%), 할인매장(18.2%), 백화점(11.7%), 유명 메이커점과 근처 양품점(4.1%)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에 따른 치수 만족도와 조사 대상자의 배경 : 구입 장소에 따른 치수 만족도(구입 후 교환 유, 무)와 조사 대상자의 배경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입 장소에 따른 치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chi^2=18.36$, $df=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교환 유, 무를 보면 치수가 맞지 않아서 교환한 적이 '있다'로 응답 한 경우 백화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54%), 그 다음이 할인매장(63.4%), 유명 메이커점(64%), 중저가 의류점(64.5%), 시장(79.2%), 양품점(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장, 양품점의 물건이 치수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입 장소에 따른 어머니의 나이와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와 학력과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차($\chi^2=118.09$, $df=1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

상은 중저가의류점(39.6%)과 백화점(26.8%)을 주로 이용하고, 고졸 이상은 중저가의류점(42.6%)과 시장(21.4%)을 중졸 이하는 시장(50.8%)과 중저가의류점(24.6%)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를 보아 보편적으로 중저가 의류점을 많이 이용하나, 학력이 높을수록 백화점, 학력이 낮을수록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방향성 측도를 본 결과 랏다값이 .07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구입 장소에 따라서 학력을 판단할 수 있었다.

직업과 구입장소와의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chi^2=15.67$, $df=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구입 장소에서는 직업의 유,무에 대해서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었으나, 양품점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64%로 직업이 없는 경우(36%)에 비해 많이 이용하고, 시장은 직업이 있는 경우(25.7%)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경우(74.3%)가 더 많이 이용했으며, 할인매장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경우(34.8%)보다 직업이 없는 경우(65.7%)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과 구입 장소와의 관계를 교차 분석을 하니 유의한 차이($\chi^2=169.80$, $df=20$, $p<.001^{***}$)가 있었다. 250만원 이상은 백화점(39.5%)과 중저가의류점(32%)을 많이 이용하고, 250만원 이하는 중저가의류점(45%)과 할인매장(18.3%), 200만원 이하는 중저가의류점(43%)과 시장(22.7%), 150만원 이하는 시장(50%), 중저가의류점(22.2%), 100만원 이하는 시장(45.7%)과 중저가의류점(28.6%)을 이용하였다. 방향성 측도를 살펴본 결과 랏다 값이 .11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소득이 결정되면 구입 장소를 판단 할 수 있다 하겠다.

구매 시 함께 가는 사람과 치수 만족도 : '아동복 구매 시 누구와 함께 가서 구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린이와 함께 가는 경우'가(47.1%) 가장 높고, '어머니 혼자 가는 경우'(31.1%),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9%), '남편과 함께 가는 경우'(8.6%), '어머니 친구와 함께 가는 경우'(4.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매 시 함께 가는 사람과 치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교차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시 주 의견자와 구입 시 기준사항 : '아동복 구매 시 어린이와 어머니 중 누구의 의견이 주가 되는가'의 질문에서 주 의견자는 어린이와 어머니 중 어린이(61.2%), 어머니(3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복인 관계로 어머니의 의견도 많이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구매 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가격, 치수, 상표의 유명도, 디자인, 소재(원단), 색상·무늬, 관리(세탁 및 보관)의 수월함, 바느질 상태 등으로 나누어 우선 순위 3가지를 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가격(25%), 치수(20.1%), 디자인(16.2%), 색상·무늬(12.4%), 소재(원단)(10.3%), 관리(세탁 및 보관)의 수월함(8%), 바느질 상태(6%), 상표의 유명도(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경미(1992)의 연구에서 성인이 기성복을 구입할 때는 디자인을 우선 순위로 응답했으나 아동복에서는 가격을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성장이 빠른 학령기의 아동이므로 옷의 교체 시기가 빠름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지역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빈도 : 아동복을 새로 구입하게 될 때 평균적인 회수와 별수에 대한 질문에서 구입 회수는 '계절이 바뀔 때 구입한다'가(68.4%)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입한다'(13.8%), 1년 단위의 구입(9%), 6개월 단위의 구입(4.2%), 2개월 단위의 구입(3.6%), 1개월 단위의 구입(1%)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구입 별 수는 1년에 '2벌' 구매하는 경우(45.3%)가 가장 많았고, '1벌'(39.4%), '3벌'(12.1%), '4벌'(2%), '5벌이상'(1.2%)의 순이었다. 그리고 아동복의 구입 빈도와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간에 따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출생 순위와 구입 빈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구입 빈도가 높다는 김경애(1992)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둘째나 셋째의 경우도 필요할 때는 출생 순위와는 상관없이 구매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간에 따른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chi^2=14.30$, $df=8$, $p<.05^{*}$)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 구입하는 경우 그 상대빈도가 농촌지역보다 더 많았고, 농촌지역에서는 수시로 구입한다가 도시지역 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3.2. 치수

치수 선정 : '아동복 구입 시 치수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입혀보아서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가(28.8%)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옷에 표시된 치수대로 구입'(25.9%), '판매원의 조언과 입혀보아서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25.6%), 그리고 '어머니의 생각대로 구입한다'(16.8%), '판매원의 조언에 따라서 구입한다'(2.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동복 구입 시 치수 선정 방법, 어머니의 배경과 지역간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나이와 직업과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에 따른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도시 지역은 '입혀 보아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판매원의 조언과 입혀 보아서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치수에 대한 확실성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ize selection and locality

	S.S.	P.F.	S.S. & P.F.	M.D.	A.S.I	Total
urban	12(3.9)	71(22.9)	95(30.6)	43(13.9)	89(28.7)	310(100)
rural	6(2)	06(34.9)	62(20.4)	60(19.7)	70(23)	304(100)
Total	18(2.9)	77(28.8)	57(25.6)	03(16.8)	59(25.9)	614(100)

*** $P<.001$, $\chi^2=20.87$, $df=4$, (λ)=0

S.S; Suggestion of Salesperson, P.F; Proper Fitting, S.S&P.F; Suggestion of Salesperson & Proper Fitting, M.D.; Mother's Discretion, A.S.I; According to the Size Indication.

이 없을 때는 판매원의 조언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치수 선정의 성공 여부와 치수 선정 방법, 구매 시 누구와 함께 가서 구입하는가 등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입 후 치수 문제로 인한 교환 유, 무와 치수 선정 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누구와 같이 가서 구매하는가와 구입 후 치수 문제로 교환한 적이 있는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치수로 인한 교환 유, 무와 가족의 월 평균 소득, 어린이의 학년(저학년-1, 2, 3학년, 고학년-4, 5, 6학년), 지역간에 따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만족도 : 아동복의 치수 만족도를 알기 위해 '구입 후 치수가 맞지 않아서 교환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 '있다'(67.3%), '없다'(3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높은 교환율(67.3%)을 나타낸 것은 '구입 시 어린이와 함께 가서 구입한다'가 47.1% 밖에 응답되지 않음과 동시에 '치수 선정 방법에서도 입혀 보아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28.8%)가 낮게 응답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아동복을 원하는 치수대로 구입해서 교환 없이 입을 수 있도록 치수 체계의 세분화와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구입 후 치수로 인한 교환 유무와 어머니의 배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의 나이와는 유의한 차이($\chi^2=5.82$, $df=2$, $p \leq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은 아동복을 구입 후 치수 문제로 인한 교환 유, 무와 어머니의 나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 빈도를 백분율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어머니의 나이가 41세 이상인 경우 다른 나이에 비해 아동복 구입 후 치수의 부적합 문제로 교환을 가장 많이 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 학력, 가족의 월 평균 소득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수 인지도 : '아동복 구입 시 치수 표기 방법(신체를 기준으로 한 표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어

머니들은 '아동의 신체 치수를 기준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몇 호로 표시하는 방법보다 편리하다'는 응답(42.5%)이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24.6%), '몇 호로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17.9%), '잘 모르겠다'(1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아동복 구입 시 같은 치수일 경우 회사마다 치수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대체로 일정하지 않다'(45.4%)가 가장 높았고, '대체로 일정하다'(39.6%), '전부 다르다'(9.1%), '모르겠다'(5.4%), '전부 일정하다'(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현행의 치수 체계(신체 치수로 치수 표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과 동시에 각 회사별로 치수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타나므로 각 업체마다 치수 규격의 통일화와 아울러 업체 패턴의 현실화와 업계 치수의 체계화를 기대해 본다.

치수 표기 방법에 대한 인지도와 어머니의 배경, 지역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연령과 직업,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력과 가족의 월 평균 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빈도는 Table 4, 5와 같다.

Table 4는 어머니의 학력과 치수표기 방법과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 치수로 치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편리하다나 그저 그렇다 또는 몇 호로 치수를 표기하는 것이 편리하다에서는 여러 학력들간의 빈도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잘 모르겠다'는 항목에서 중졸 이하가 다른 학력에 비해 많은 응답을 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신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중졸 이하에서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는 가족의 월 평균 소득과 치수 표기 방법에 따른 차이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경우 신체를 기준으로 한 치수표기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150만원 이하 즉 소득이 낮은 경우가 소득이 높은 경우보다 '잘 모르겠다'에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소득이 낮으면 치수표기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치수 적합도

아동복을 치수에 맞게 입혔을 때의 착용상태 정도를 각 부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Understanding of Size Indication &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 below	high school	college & beyond	Total
A.B.M.	43(35.2)	146(44.5)	72(43.9)	261(42.5)
S.S.	25(20.4)	90(27.5)	36(21.9)	151(24.6)
A.S.	19(15.5)	55(16.8)	36(21.9)	110(17.9)
D.M.	35(28.9)	37(11.2)	20(12.3)	92(15)
Total	122(100)	328(100)	164(100)	614(100)

*** $P \leq .001$, $\chi^2=25.53$, $df=6$, $N=614$, ()=%, A.B.M.=According to the Body Measurements, S.S.=So So, A.S.=According to the Size D.M.=It Doesn't Matter

Fig. 1. The Exchange after the Purchase of Children's Clothing.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Understanding of Size Indication & Income

	1,000 below	1,500 below	2,000 below	2,500 below	2,500 beyond	Total
A.B.M.	23(32.8)	36(33.3)	75(49.6)	92(45.5)	35(42.1)	261(42.5)
S.S.	14(20)	27(25)	32(21.2)	58(28.7)	30(24.2)	151(24.6)
A.S.	17(24.4)	12(11.1)	27(17.9)	32(15.8)	22(26.5)	110(17.9)
D.M.	16(22.8)	33(30.6)	17(11.3)	20(10)	6(7.2)	92(15)
Total	70(100)	108(100)	151(100)	202(100)	83(100)	614(100)

***p≤.001, x²=45.52, df=12, ()=%, unit=1000 won, A.B.M.=According to the Body Measurements, S.S.=So So, A.S.=According to the Size D.M.=It Doesn't Matter

위별로 나누어 Likert 5점 척도법(1=작다, 5=크다)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빈도에 따른 백분율의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아동복을 치수에 맞게 입혔을 때 '적당하다'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슴둘레와 어깨너비는 60.7%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적당하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소매길리와 하의길리는 크다는 쪽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임세미(1984)의 연구에서도 바지길리와 소매길리는 3~6 cm, 8~13 cm의 차이가 있어 약간의 수선을 해야한다는 보고와 같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수선 사항을 질문하였을 때 소매길리와 바지길리 수선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허리둘레에서도 크다는 쪽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서은정(1995)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체형을 분석하여 의류 치수 규격을 설정했을 때 허리둘레 치수 설정에서 제조 업체 치수 보다 작게 설정되었다는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엉덩이둘레와 밑위길리도 '적당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아동복의 치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인체 계측을 통한 합리적인 분석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체형에 맞추는 발빠른 대응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겠다.

Table 6. The fitting When Children's Clothing Are Properly Fitted (N=614), (%)

Item	Small	A Little Small	Just Right	A Little Big	Big
bust girth	2.8	8	60.7	22.1	6.4
shoulder breadth	2.1	6.8	60.7	24.9	5.5
waist girth	4.7	11.1	45	26.7	12.5
hip girth	3.9	11.9	58	20	6.2
arm length	3.7	10.6	38.8	37	9.9
upper garment length	3.4	9.9	51.8	29	5.9
crotch depth	4.2	14.3	55	21	5.5
under garment length	6.5	9.3	33.1	35.3	15.8

위의 8개 항목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는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가로 항목(신뢰도: .80)요인과 세로 항목(신뢰도: .77)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63.1%였다. 가로 항목은 가슴둘레,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였고, 세로 항목은 소매길리, 상의 길리, 밑위길리, 하의길리였다.

이를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에 대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평균차이를 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각 항목의 평균값을 보면 가로 항목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착용상태에 있어서 적당하다는 3의 값에 더 가까웠으며, 세로 항목에서도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가로항목과 세로항목의 전체에 대한 착용 상태를 본 결과 그 평균값이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고학년이 저학년 보다 착용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Table 8은 '어린이가 성장하여 다시 의복을 구입하게 된 경우 이전 옷의 어떤 부위가 맞지 않아서 구입하게 되는가'를 복수 응답하게 한 후 백분율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하의 길리와 소매 길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柳澤澄子(1971), 최선영(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성장

Table 7. Difference between upper grade & lower grade on horizontal & vertical item

Items	Mean	T-value
Horizontal	upper grade	2.84
	lower grade	2.7
Vertical	upper grade	2.82
	lower grade	2.58
Sum(H.+V.)	upper grade	2.83
	lower grade	2.64

*** p≤.001, ** p≤.01

Table 8. The Parts of the Previous Clothes that were not properly fitting upon the New Purchase of Children's Clothing (N=614), (%)

Item	%	Item	%	Item	%
overall room	13.3	arm length	17.8	hip girth	5.0
bust girth	4.1	upper garment length	12.0	crotch depth	6.5
should breadth	4.1	waist girth	13.5	under garment length	23.4

이 수평 크기 항목 보다 수직 크기 항목이 현저하다고 보고 된 바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허리 둘레와 전체적인 여유 순으로 작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경제성

Fig. 2. 에서는 '아동복 구입 시 크기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하는가'를 백분율로 알아보았다. 아동복 구입시 옷의 크기는 '표시된 치수보다 한 치수 큰 것'(O.S.B.)을 구입하는 경우(6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표시된 치수보다 두 치수 큰 것'(T.S.B.)으로 구입(16%), '표시된 치수대로 구입'(P.F.S.)(15.8%), '세 치수 이상 큰 것' (than T.S.)으로 구입(4.7%), '표시된 치수보다 작은 것'(S.)으로 구입한다(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의복이므로 대부분이 표시된 치수보다 큰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Table 9과 같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표시된 치수보다 더 크게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복을 구입 후 어느 정도 입히기를 원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복 구매 시 입기를 원하는 기간은 '2년'



S: Samll, P.F.S: Proper Fitting Size, O.S.B: One Size Bigger, T.S.B: Two Size Bigger, than.T.S.: More Than Three Size Big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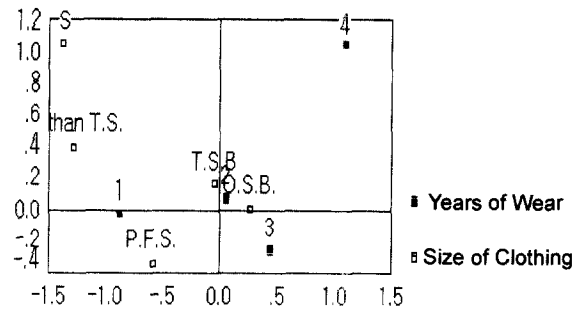
Fig. 2. The Size Children's Clothing upon Purchase.

Table 9.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Children's Clothing upon Purchase & Locality

	S	F.T.S	O.S.B	T.S.B	than T.S.	Total
urban	1(0.3)	58(18.7)	206(66.5)	37(11.9)	8(2.6)	310(100)
rural	2(0.7)	39(12.8)	181(59.5)	61(20.1)	21(6.9)	304(100)
Total	3(0.5)	97(15.8)	387(63)	98(16)	29(4.7)	614(100)

***P<.001, $\chi^2=17.31$, df=4, ()=%

S: Samll, P.F.S.: Proper Fitting Size, O.S.B: One Size Bigger, T.S.B: Two Size Bigger, than T.S.: Than Three Size Bigger



S: Samll, P.F.S: Proper Fitting Size, O.S.B.: One Size Bigger, T.S.B: Two Size Bigger, than.T.S.: Than Three Size Bigger

Fig. 3. The Actual Time of Wear and the Size upon Purchase

(61.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년'(30.9%), '1년'(6%), '4년이상'(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입 후 실제 입었던 기간을 알아본 결과 '2년'(60.9%), '3년'(21.2%), '1년'(16.3%), '4년이상'(1.6%)의 순이었다. 이로 보아 학령기가 성장기에 있으므로 대부분이 2년 이상 입히기를 원했고, 원하는 기간만큼 입혔으나, 1년밖에 못 입힌 경우도 16.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관계를 대칭적 측도로 살펴본 결과 감마 값이 .66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입히기를 원했던 기간만큼 입힐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아동복을 구입 한 후 실제로 입을 수 있었던 기간과 아동복 구입 시 크기간의 관계를 알고자 대응분석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표시된 치수보다 한 치수 큰 것을 구입하였을 때 실제로 입히기를 원했고, 입힐 수 있었던 기간(2년)만큼 입을 수 있었다.

3.5. 수선

'아동복 구입 직 후 치수의 부적합 문제로 수선을 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가끔 한다'(41%), '거의 없다' (30.9%), '크지만 그냥 입힌다'(19.1%) '자주 하는 편이다'(7.3%), '거의 매번 한다(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동복 구입 직후 수선을 한다면 어느 부위를 수선하느냐'의 질문을 통해서 옷의 종류에 따른 수선 부위를 알아보았다.

자켓 : 자켓에서 남학생의 경우 '소매 길이를 줄였다'(52.4%)가 가장 높고, '옷길이를 줄인다'(20.1%), '폼을 줄인다'(7.8%), '소매길이를 늘린다'(7.5%), '옷길이를 늘린다'(6%), '폼을 늘린다' (3.7%), '어깨폭을 줄인다'(2.2%), '어깨폭을 늘린다'(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같은 순서로 수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관계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블라우스, 셔츠 : 남학생의 경우 '소매길이를 줄인다'(66%)가 가장 높고, '옷길이를 줄인다'(14.2%), '소매길이를 늘린다'(10.5%), '옷길이를 늘린다'(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같은 순서로 수선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관계를 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바지 : 남학생의 경우 구입 직후 수선한다면 '바지길이를 줄인다'(6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허리둘레를 줄인다'(14%), '밑위길이를 줄인다'(7.5%), '허리둘레를 늘린다'(5.8%), '바지길이를 늘린다'(4.5%), '밑위길이를 늘린다'(2.7%)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바지길이를 줄인다'(51.3%)가 가장 높고 '허리둘레를 줄인다'(22.8%), '밑위길이를 줄인다'(11.9%), '바지 길이를 늘린다'(8.9%), '밑위길이를 늘린다'(3.4%), '허리둘레를 늘린다'(1.7%)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chi^2=25.75$, $df=5$, $P \leq .001^{***}$) 나타내었다. 그 결과 '허리둘레를 줄인다'고 응답한 경우의 상대빈도에 의한 백분율이 남자는 14%이고, 여자는 22.8%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허리둘레를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지길이를 줄인다'고 응답한 경우 남자는 65.4%, 여자는 51.3%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바지길이를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피스 : 원피스의 경우는 '소매길이를 줄인다'(3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항목이 '전체 길이를 줄인다'(25.1%), '몸을 줄인다'(12.0%), '전체 길이를 늘린다'(11.7%), '소매길이를 늘린다'(6%), '몸을 늘린다'(6%), '어깨 폭을 줄인다'(5%), '어깨 폭을 늘린다'(0.4%)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스커트 : 스커트는 '허리둘레를 줄인다'(41.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치마길이를 줄인다'(28.1%), '치마길이를 늘린다'(18.1%), '허리둘레를 늘린다'(5.6%), '옆선을 줄인다'(3.7%), '옆선을 늘린다'(3%)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위의 수선 문항에서 길이 항목을 줄인다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복 구입 시 '표시된 치수보다 한 치수 큰 것을 구입한다'가 6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기 때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길이 항목이 아동의 실제 치수보다 크게 제조됨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켓, 블라우스·셔츠, 원피스의 경우 전체 길이 수선보다 소매길이 수선이 높게 보고되었다. 또한 품과 길이 항목도 늘여서 입는 것도 응답됨에 따라서 아동복 패턴 구성 시 성장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체형을 분석 연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사이즈 스펙과 함께 체형에 맞는 과학적 패턴이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계속 늘어가는 비만 아동에 대한 패턴 연구도 병행되어 그들에 맞는 적절한 의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복에서 활동성과 다 목적성을 요구하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의류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생산되는 아동복의 치수 및 적합성, 경제성, 수선 상황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복의 구입자인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조사 방법으로 의류 치수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중저가 의류점, 시장, 할인매장, 백화점, 유명 메이커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구입하는 장소에 따른 치수 만족도와 조사 대상자의 배경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치수 만족도와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과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나이와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만족도에서는 백화점의 물건에 비해 시장과 양품점의 물건이 치수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과의 관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백화점, 학력이 낮을수록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직업 유·무와의 관계에서는 양품점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많이 이용하고, 시장과 할인매장은 직업이 있는 경우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중저가 의류점을 선호하나, 소득이 높을수록 백화점을, 소득이 낮을수록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매시 함께 가는 사람은 어린이와 함께 가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구매 시 함께 가는 사람과 치수 만족도에 따른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매 시 주 의견 자는 어린이가 61.2%, 어머니가 38.8%였다. 그리고 구매 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선 순위 3가지를 질문한 결과 가격, 치수, 색상·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간의 분석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5. 아동복의 구입 빈도에서는 1년에 2번 구매하는 경우와 계절이 바뀔 때 구입한다가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른 교차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가 있었다.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 구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은 수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6. 아동복 구입 시 치수를 선정할 때는 입혀보아 맞는 것으로 구입한다가 28.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치수 선정 방법과 지역에 따른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농촌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판매원의 조언과 입혀보아 맞는 것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았다.

7. 구입한 아동복을 치수 문제로 교환했다는 응답이 67.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나이와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이에 비해 41세 이상인 경우 치수 문제로 교환한 경우가 많았다.

8. 치수 표기 방법에서 아동의 신체 치수를 기준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호수로 표시하는 방법보다 편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동복 구입 시 같은 치수일 경우 회사마다 일치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대체로 일정하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치수 표기 방법과 어머니의 학력과 소득에 따른 관계에서는 유의 차이가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의 경우 치수표기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 신체를 기준으로 한 치수표기방법을 선호하고, 소득이 낮은 경우 치수표기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아동복 구입 시 크기 정도에서는 한 치수 큰 것을 구입다가 가장 높았다. 크기 정도와 지역간의 관계에서는 농촌지역

이 도시지역에 비해 표시된 치수보다 더 크게 입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0. 아동복을 치수에 맞게 입혔을 때의 착용상태에서는 가슴 둘레와 어깨너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착용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아동복을 구입 후 입히기 원하는 기간은 2년이 가장 많았고, 구입 후 실제로 입었던 기간도 역시 2년으로 가장 높았다.

12. 아동복을 치수에 맞게 입혔을 때의 착용 상태에서 가슴 둘레와 어깨너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적당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소매길이, 하의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는 크다는 쪽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13. 어린이가 성장하여 다시 의복을 구입하게 될 경우, 이전 옷의 하의 길이와 소매 길이가 맞지 않아서 구입하게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4. 아동복 구입 직후 치수 부적합 문제로 수선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가끔 한다가 가장 높았고, 수선 항목별로는 길이 항목을 줄인다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복 패턴, 구성 시 성장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체형을 분석 연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사이즈 스펙과 함께 체형에 맞는 과학적 패턴이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계속 늘어가는 비만 아동에 대한 패턴 연구도 병행되어 그들에 맞는 적절한 의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의 수가 적고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 및 고찰을 확대 해석함은 무리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치수는 성장과 관계되므로 치수 적합도에서 전 학년을 비교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여 이 점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강혜원 (1998)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p.108.
 강현주 (1989) 국민학교 남자아동 기성복 바지와 남방셔츠 치수 실

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애·김희영 (1992) 의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II. 전주우석대학교 논문집. 제14집. p.157-172.
 김경애 (1992) 의류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 I. 전주우석대학교 논문집. 제14집. p.141-155.
 김영옥 (1975) 소득 계층별 학령기 아동의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서 (1993) 학령기 아동의 상지동작에 따른 체표면변화 및 원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숙 역 (1993) 피복구성학 이론편. 경춘사, p.102.
 서은정 (1995) 국민학교 아동의 체형과 의류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상옥 (1976) 도시주부의 의생활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79-89.
 이숙녀 (1994) 학령후기 여아의 인대 및 길원형 제작을 위한 피복인간공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미 (1992) 중년여성 기성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1981) 아동복 원형제작에 필요한 치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1997) 중년기 여성 재킷패턴의 착의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미 (1989) 학령기아동의 의복치수 규격 및 등급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세미 (1984) 아동복 표준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인숙·배현숙 (1996) 취학 전 아동의 의생활 상황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7집 2권, p.97-116.
 전은경 (1992) 아동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분석 및 인대모형 설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정혜영 (1980) 어머니들의 아동복 구매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4(1), 1-9.
 최선영 (1998) 학령기 아동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특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柳澤澄子 (1971) 被服體型學, 光生堂, p.52.
 布施谷 節子 (1991) 乳幼兒の衣生活の現状(第1報). *日本家政學會誌*. 42(6), 45-50.
 Ryan Mary Shaw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 and Winston. p.222.

(2000년 1월 26일 접수)